도, 생활 밀착형 현장행정 확대 추진

도지사 ‘희망대화’ · 남부시장 간부회의 · 현장중심 정책조정회의 ·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해

전북도는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의 ‘절문근사’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생현안에서 답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매년 의례적으로 추진하던 연초 도지사의 시군방문을 올해부터는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방식으로 전환해 의례적 의전절차, 형식적인 보고나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애고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제, 지난 10일 처음 방문을 시작한 고창군에서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농업인 등과 대화를 진행하며 6차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비상시국에 따라 도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27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간부회의는 그동안 도청 내에서만 개최되던 회의를 전통시장이라는 민생현장의 한가운데에서 유관단체장, 경제관련 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정의 중요 아젠다, 사업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도 지휘부와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현장중심으로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키로 했다.

먼저, 최근 각 지자체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치열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탄소산업과 연구개발특구 R&D 기능 등을 연계한 4차산업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를 3월초 전북도 문화컨텐츠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완공되고 이달 말 이전을 앞두고 있어, 금융타운 건립 가시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국제 금융중심의 미래창조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3월중에 혁신도시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최근 식약처의 위생검사 결과 식품취급 사회복지시설의 위생기준 위반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현장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해결함으로써 도정 성과 제고에 기여한 현장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무원(팀)에 대해 직무성과 가점을 부여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정이 현장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로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우수사례를 실국별 안배해 선정하던 것을 위원회 심사를 통해 10건 내외로 선정하고, 0.1점을 부여하던 가점을 0.1점~0.2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현장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직무성과 가점도 확대 부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전 청원이 절문근사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는다면 도정 성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 ‘민관합동점검 기동반’ 가동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관합동점검 기동반’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약120명이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2017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관합동점검 기동반은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예찰 등 9개 분야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관련 대학생, 민간예찰단 등 169명으로 구성하고,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한다.

이들은 지역 내 재난위험요소 및 안전사각지대 등을 발굴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안전관리대상 시설 1만2,662건 중 15%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내 예찰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시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한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팔 걷는다

태국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전북관광 홍보관 운영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북도가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태국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관광홍보관 운영을 시작으로 전북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해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태국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관광홍보관을 운영했다.

태국 국제관광박람회는 태국여행사협회 주최 소비자 대상의 태국 최대 여행박람회로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20여개국 180개 단체가 참가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전북도는 겨울과 봄꽃을 테마로 구성한 한국관 내부에 덕유산 설경, 지리산 철쭉 등을 배경으로 전북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최근 한류관광지로 떠오르는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인 고창의 메밀밭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개별관광객의 맞춤상품인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셔틀버스’와 전북도 대표적 브랜드상품인 ‘전북투어패스’를 적극 알렸다.

더불어 태국관광객의 전북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전북도 홍보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SNS이벤트를 펼쳐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전북관광 홍보관 운영과 병행해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여행사 및 태국국제관광전 참여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근 태국 여행객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도는 전북방문의 해로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FIFA U-20월드컵대회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홍보해 전라북도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고, 지난해 열린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를 올해는 국제무술문화교류축제로 확대해 동남아, 일본, 대만 등 태권도 수련인과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도는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인도네시아 관광설명회 개최, 베트남 국제관광전 참가, 말레이시아 관광공사 전주 한옥마을 쿠폰북 발행 등 동남아 관광객에게 도를 알리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등 국제정세에 변화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 타깃을 요우커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대폭 강화

전북도는 예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출자.출연금 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금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출자.출연금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계획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사.축제 심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해 지난해 말 외부 채무를 제로화하고,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규모를 확보했으며,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재정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안재용 기자

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전북도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교육청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0개반 4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매점 포함),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 등 총 400곳을 점검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또 학교 급식소의 조리식품 등 식품 100건을 수거.검사해 위해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도 AI ·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조사 만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의거 FRP매몰을 제외한 일반매몰지역 주변 150m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AI 및 구제역으로 인한 일반 매몰지는 김제시 21곳, 정읍시 1곳으로 총 22개소이며, 지침에 의하면 최초 매몰 후 1년 동안은 분기 1회씩, 2~3년 동안은 반기 1회씩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안재용 기자